■ 백혈병·장애 딛고 공무원 꿈 이룬 송현지씨

"꿈이 생기니 삶이 행복해졌죠"

공무원의 길을 소개한 이애순 주무관(왼쪽)과 백혈병·장애를 이겨내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지난달부터 서홍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현지씨. 백금탁기자

백혈병과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새내기 공무원(행정 9급)으로 첫발을 내딛은 20대 '여전사'가 있다. 주인공은 지난 8월 24일자로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실무수습으로 배치된 송현지(26·서홍동)씨. 그녀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진지한 삶에 대한 애착 속에 쉼 없이 꿈과 희망에 도전해 성공하며 코로나19로 힘든 우리사회에 잔잔하면서도 묵직한 메시지를 전한다.

서홍동에서 송씨와 그에게 공무원의 길을 안내한 이애순 주무관(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을 만난 것은 지난 1일이다. 이들의 소중한 인연은 사례관리를 넘어 선·후배 공무원으로, 멘티·멘토로서 다시 이어졌다.

송씨는 대신중학교 2학년이던 2009년 12월에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 이후 중학교를 1년 휴학했고, 오랜 투병은 가족들의 일상마저 바꿔놨다. 여행업으로 맞벌이를 하는 부

중 2학년때 백혈병 진단
약물 후유증 장애까지
독학으로 공무원 준비
두 번째 도전만에 합격
"첫 월급 타면 고마운 분들 위해 선물 드리고 싶어"

모(송동석·61, 김명자·52)는 1~2주 간격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 동행했고, 친오빠(송현수·29)는 2010년 4월 자신의 골수를 이식해 주면서 동생의 쾌유를 빌었다. 지금은 가족의 힘으로 백혈병은 완치됐다.

하지만 후유증은 다시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2012년 3월에 입학한 서귀포여자고등학교는 1년을 다니고 이듬해 5월에 중퇴했다. 송씨는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제 약물 복용에 따른 근육계 후유증으로 호흡기 장애(중증)와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방안에서만 생활해야 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 밖에 없었다. 인터넷 강의만으로 2016년 8월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 2018년 11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획득했다. 그리고 2020년 낙방 끝에 올해 두번 도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송씨는 힘들었던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그동안 마음속에 뒀던 말들을 꺼냈다. "부모님과 오빠, 이애순 주무관님 모두에게 감사드려요. 모두가 집에 있으면서 건강만 생각하라고 할 때였는데 공무원이라는 꿈이 생기니까 운동량을 늘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즐겁고 의욕이 생겼죠. 평생 갇혀 있을 것만 같았던 방안에서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제일 기뻤죠. 얼마 없으면 추석인데, 9월 첫 월급을 타면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할거예요."

이애순 주무관은 "힘들었던 시간만큼, 아무도 가보지 못한 현지만의 길을 힘차게 잘 걸어갔으면 한다"며 "이번 사례관리는 당연한 일인 데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공직생활하면서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데 스스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지금도 길게 이야기를 하면 소리가 울리고, 오래 걷는 데도 불편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익숙'해져서 괜찮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 편의 개선에 관심이 많아 관련 업무를 하고 싶다"는 그녀다. 힘든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곱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파도 속 감태 채취 6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바닷가에서 어민들이 파도에 떠밀려온 감태를 채취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학생 100명 중 2명 "폭력 피해 경험"

제주도교육청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결과
초등생 4.8%로 가장 많아… 언어폭력·따돌림 순

올해 4월 실시한 학교폭력 1차 실태조사 결과 도내 각급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이 다시 증가해 10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언어·신체폭력이 증가했는데, 제주교육당국은 학생들의 등교·원격수업 반복과 방역수칙 준수로 인한 학교생활 스트레스 증가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학교급별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아 학교폭력 저연령화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4월 실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1차 실태조사에서 제주지역 참여율은 90.5%(초3~고3 재학생 중 5만4292명 참여)다.

조사결과 2.1%인 1122명이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4월까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8%(928명), 중학교 0.7%(130명), 고등학교 0.4%(64명)였다. 가해 응답률은 0.8%(439명), 목격응답률은 4.1%(2245명)로 나타났다.

수년간 증감을 반복했던 피해 응답률은 2017년 1.2%(735명), 2018년 1.6%(903명), 2019년 2.2%(1214명)로 꾸준히 증가해 보다 근본적인 맞춤형 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9월 한번으로 축소해 전수조사(초4~고2)가 이뤄졌는데 피해응답률은 1.6%(723명)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43%), 집단따돌림(15.6%), 신체폭력(13%) 순으로 나타났다. 여러 유형 중 언어·신체폭력 유형이 올해와 비슷한 1000명대를 기록했던 2019년(35.9%·8.5%)과 지난해(36.7%·8.5%)와 비교해 모두 증가했다.

피해 발생 장소는 학교 안이 67.5%, 학교 밖 32.5%였다. 오은지기자

"성매매 청소년 보호 전문기관 필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피해 청소년 등 심층면접

성매매 경험을 가진 제주지역 청소년들은 성매수자 등에 의해 피해를 보더라도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까봐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 및 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대부분 가족을 비롯한 보호자의 경제적, 정서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아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에 성매매 시장 재진입 유혹에 빠져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들은 성매수자나 알선자로부터 강제 영상 촬영 및 배포협박 등 다양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는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거나 청소년 쉼터, 성매매보호시설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활동가들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인과 다른 청소년 문화와 소통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 성매매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타 시도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성매매 상담센터 신설이 시급하다"며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래 상담원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아동 성착취물 유포한 30대 법원 "죄질 나빠… 징역 5년"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무차별 유포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텔레그램에서 B씨에게 3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30개와 음란물 1241개가 담겨진 '박사방 풀팩'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총 8개의 그룹 채팅방을 운영하고, 이 채팅방에 접속한 60여명의 회원들과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도촬물, 음란물 등을 거래·공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은범기자

연립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어

제주시내 한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5여분 만에 진화됐다.

6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59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은 소방관과 장비를 동원해 신고접수 15여분 만인 오후 8시15분쯤 불을 모두 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35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강민성기자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지원대상 : '21.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α(맞벌이·1인가구 특례기준 적용 우대)**
- **지급규모 : 1인당 25만원(가구당 금액 상한 없음)**
- **신청방법 및 지급수단** : 카드사 신청(신용·체크카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신청 등
  - 신용·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오프라인) 은행창구 방문
  - 지역사랑상품권(탐나는전) : (온라인) 도 홈페이지, 탐나는전 홈페이지·앱(모바일·카드형),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고령자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신청'이 가능
-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기한) '21. 9. 6.(월) ~ 10. 29.(금), (지원금 지급) 신청한 다음날 충전하고 문자 통보
- **신청주체**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 **지원금 사용** : 제주도내에서만 사용가능
- **지원금 사용 기한** : '21.12.31.(금)까지
- **이의신청** : '21.9.6.(월) ~ '21.11.12.(금)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요일제 시행** : 대상자 조회, 지급신청, 이의신청 (요일제는 시행 첫 주만 적용)
  - 방식: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온라인 경우)

대상자 여부 직접 조회

- **(조회기간) '21. 9. 6.(월) ~ '21. 10. 29.(금)**
  ※ 온라인 조회 첫 주는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 제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조회방법)** 〈온 라 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오프라인〉 읍·면·동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등
- **(서비스내용)** 지급대상 여부, 금액, 신청기한·사용기한 등 조회